



# 전기자기적합성(EMC)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대폭 확대

최근 5년간 국제표준 제안 및 주요요직 수임 실적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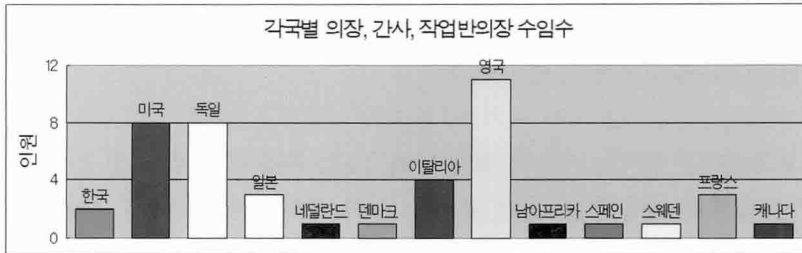
▶ 문 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02-509-7296)

- 우리나라 수출의 33.6%(1,250억불, '07년)을 차지하는 디지털전자분야 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기자기적합성(EMC)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우리나라의 참여가 늘면서 향후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 ※ 전기전자제품 판매 및 수출을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한 전기자기적합성 인증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함 (예 : CE마크, UK 마크, CN 마크, E 마크 등)
  - ※ 전기자기적합성 : 전기전자제품이 외부 전자파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 할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기기의 성능 장애 유발 여부를 판단함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남인석)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전기자기적합성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에 2명의 작업반의장 수임 등 총 7명이 표준화 주요요직에 진출하였으며,
  - LED 전광판 등에 적용 가능한 “대형구조물의 전기자기장해(EMI) 현장측정 방법”이 올해 7월 국제표준으로 발간되었으며, 이외에도 7건의 우리기술을 추가로 국제표준에 제안하여 표준화 작업이 추진중에 있는 등 전기자기적합성분야에 괄목할만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IEC/CISPR(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 국제표준화회의에 25명의 한국대표단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7종의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PDP 디스플레이 저주파 복사방출 측정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의 전기자기장해분야 국가표준화 위원회간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표준화 동향 등 정보교류를 통한 표준화 협력을 도모하게 된다.

- 한편 전기자기적합성분야 한국산업규격(KS)은 “텔레비전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등 92종이 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동 분야 국제표준을 관련 산업계 및 시험인증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 전기자기적합성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 주요 요직수입
  - 작업반 의장(2명), 프로젝트리더 (5명) 등 총 7명
  - 대형구조물의 EMI 측정(SC H/WG4) 작업반의장 : 이중근 교수(한양대)'03.10.~
  - 송전선로, 전기철도(SC B/WG2) 작업반의장 : 안희성 책임(기초연)'07.10.~



- 한국제안 국제표준 진행 현황
  - 1종 제정완료, 7종 제정(기술반영) 진행중

연번	제안기술명	제안자	제안분야, 진행단계(시기)	제안형태
1	대형구조물의 전기자기장해(EMI) 현장측정 방법	이중근 교수 (한양대학교)	IEC CISPR/SC H, 발간( '0807), (2002.08)	규격
2	송전선로의 전자파 측정지점 선정방법	안희성 책임 (기초전력연구원)	IEC CISPR/SC B, WD (2004.11)	기술
3	송전선로의 전자파 프로파일	"	IEC CISPR/SC B, WD (2004.11)	기술
4	송전선로의 전자파 예측 및 산출계산식	"	IEC CISPR/SC B, WD (2004.11)	기술
5	전자레인지의 전기자기장해 측정용 표준부하	조원서 센터장 (산업기술시험원)	IEC CISPR/SC F, FDIS (2004.06)	기술
6	로봇청소기 EMI 측정방법	"	IEC CISPR/SC I, FDIS (2004.12)	기술
7	TV의 전기자기내성 시험방법	장태현 책임 (산업기술시험원)	IEC CISPR/SC F, CD (2005.10)	기술
8	저압 배전 계통(220/380V)의 60Hz 기준임피던스	송양희 과장 (기술표준원)	IEC TC77/SC A, CD (2004.09)	기술



# 기술 · 표준에 관한 최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 외 기술, 표준 및 기술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문의 :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02-509-7259)

## KATS 기술보고서 발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국내 · 외 기술, 표준 및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위해 “KATS 기술보고서”를 발간한다.

KATS 기술보고서에는 RFID, 자동차 대체 냉매, LED 조명 등 단위 기술 산업에 대한 기술 · 표준 동향, 기술규제와 대응방향 등의 내용을 담아 국내 산업이 국제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관세 등의 전통적인 무역장벽 대신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 규제가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되는 매년 평균 1,200여종의 국제표준 중 일부도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어 KATS 기술보고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표원, TBT 중앙사무국 역할 수행

지난달부터 기술표준원이 “TBT 중앙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되었던 TBT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국내 · 외의 모든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10월 22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되며, 차차 회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표준이나 기술규제 등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판을 발간하여 국내

기업에게 적기에 정보를 제공키로 하였으며, 의문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 기술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활용지원

첫 번째 기술보고서에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RFID에 대한 정보를 실었다. 주요 내용은 산업 및 시장 동향, 국제표준화 기구(ISO/IEC) 및 주요 국제적인 표준단체(EPC Global, AIM Global)의 국제표준화 동향, 국내 표준·주파수 현황 및 산업화 연계 개념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 국내 동향과 정부 지원·추진계획 등 대응방향 및 시사점 등으로 기술하였다.

기술보고서는 기술표준원에 등록된 전문가에게 e-메일로 보내지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보고서가 되기 위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KATS 기술보고서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른 기관 등에서 게재, 인용 또는 인쇄·배포를 원할 경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